

# 현대車, 물류 수송용 '수소전기트럭' 상용화

### 2023년 광양항~부산 320km 구간 운행

현대자동차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손잡고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 상용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과 길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여수광양항만공사 수소전기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의 개발·실증, 수소충전소 설치 등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정착 및 광양항 수소경제 활성화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왼쪽)과 길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는 등 수소연료전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내에 수소 충

전소 구축 부지를 제공하는 등 시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2023년까지 2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듬해 10대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기트럭은 광양항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 거리 약 320km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약 2000㎡)를 제공해 2022년까지 광양항 내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스위스 'H2Energy'에 액시언트 기반의 대형 냉장냉동 및 일반냉동 수소전기트럭 공급 계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기차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려면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말썽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 자동차산업 허브인 우한의 공장이 생산을 멈추면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도 중국 현지에서 공급받은 전선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장을 멈춰세웠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달리 한국지엠의 경우 17~18일만 가동 중단하며 생산 물량 피해를 최소화했다.

반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이 노사갈등으로 파업하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올스톱'한 사태를 경험했다. 1000원짜리 부품을 만드는 작은 업체였지만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다. 10여년이 지난 현대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부품을 중국에서 80% 이상 조달받고 있었고, 이번 물량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사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 공포는 잇을만 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했다.

반면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했다. 실제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이 국내 업체만큼 크지 않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된다해도 이와 비슷한 사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언제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위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 NH저축은행, 꽃 나눔으로 화훼농가 돕는다

고객·임직원에 꽃 선물... 소비 촉진 나서

NH저축은행은 지난 14일 강남구 소재 본점영업부에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꽃 나눔을 통해 그동안 거래해 준 고객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전 임직원에게 초콜릿 대신 관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으로 만든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꽃 소비 촉진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꽃 소비 급감으로 인해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훼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H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사무실 내에 꽃 화분 비치, 임직원 꽃 생활화 운동 등 꽃 소



지난 14일 강남구 소재 NH저축은행 본점영업부에서 실시한 '꽃 나눔 행사'에서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가운데)가 영업점 내방고객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NH저축은행

비촉진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오늘의 운세 2월 17일 (음 1월 2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시시비비(是非非非)보다는 양보해보는 것이. **48년생** 돈은 쓰라고 버는 것이 아닌. **60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72년생** 껌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4년생**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마워 마라.
- 37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한다. **49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과도한 지출을 한다. **61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73년생** 마음이 우울하지만, 영입은 잘되어 준다. **85년생**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 3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62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수확. **74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된 일을 처리. **86년생** 내 행동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 39년생**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온다. **51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솔선수범이다. **63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5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87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한다.
- 4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2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4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76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자. **88년생** 피곤하니 휴식이 필요하다.
- 41년생** 과거 이어온 신용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53년생**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65년생** 흥망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77년생** 기억력이 쇠퇴하니 반드시 메모. **89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기는 하지 말도록.

- 42년생** 마음고생이 심하나 보답은 받는다. **54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66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도 좋다. **78년생** 손재주가 있으니 지출을 신중히. **9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할 것
- 4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는 가지 마라는데. **55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 봐도 별 볼 일이 없다. **6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9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9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을 조심
- 44년생** 하찮은 걱정은 접어 두라. **56년생** 고쳐 쓰기 힘든 것은 빨리 버려라. **68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80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위기이다. **92년생** 마음 가는 아성이 있다면 대화해보라.
- 45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57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6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81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중일 마음이 불편. **93년생**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 46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58년생**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70년생** 행복을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82년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해야 한다. **94년생**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 47년생** 추위가 닥쳐오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 **59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71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예습에서 결정. **83년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반짝인다는 것을 명심. **95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다.



# 김상회의四季 시종득소(始終得所)

시종의 이치란 오행이 천간(天干)에서 시작하여 천간에서 막힘없이 생생유통하여 지지(地支)에 이른다. 또는 지지에서 시생하여 막힘없이 천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팔자가 생화(生化)로 끊임없이 구슬을 꿰듯이 합작(合作)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멈출 곳에서 멈추는 구조라면 쟁투하지 않고 유정하여 부귀하게 된다.

음력 2월에는 화가 많아 조금만 화가 뇌 관련 건강에 유의하고 똥똥한 사람은 치아 관련을 잘 살피길 바란다. 가을 생은 조직에서 상사의 조언을 신중히 받아들여라. 말대꾸하거나 뒤에서 씩다가 4월에 불이익을 당한다. 음력 3월에는 큰 인물이 될 아가가 탄생하고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 수면에 떠오른다.

조선 시대의 민화에도 쥐가 나올 땐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풍요가 가능한 건 미래를 보는 예지력과 앞날을 대비하는 준비성이다. 쥐의 예지력은 삼국사기의 신라 해공왕 기록을 보면 치악현에서 쥐 팔천 마리가 이동하는 이변이 있었다.

그해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이듬해 흉년이 들고 나서야 사람들은 쥐의 영리함을 알았다. 쥐가 배에서 내리면 폭풍이 온다는 속담은 위험을 감지하는 쥐의 능력을 알려준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미리 감지하는 이런 능력은 역에서 알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황재는 쥐의 것이 아니다.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으는 노력이다. 영화 중에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는 대사가 있었다. 멋진 대사였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고를 기울여야 한다. 내다보는 예지력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확연히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4 |   |   |   | 7 | 6 |
| 1 | 3 |   | 5 |   | 9 |
|   | 9 | 5 | 2 | 4 | 3 |
| 2 |   | 6 | 8 | 7 | 5 |
| 9 | 7 |   |   | 3 | 2 |
| 5 | 4 | 9 |   | 3 | 6 |
| 4 | 6 |   | 3 | 5 | 2 |
| 3 |   |   | 9 | 8 | 6 |
|   | 2 | 8 |   |   | 5 |

**정답**

|   |   |   |   |   |   |
|---|---|---|---|---|---|
| 8 | 1 | 9 | 7 | 2 | 9 |
| 9 | 9 | 8 | 2 | 7 | 1 |
| 7 | 2 | 5 | 1 | 8 | 9 |
| 9 | 8 | 7 | 9 | 1 | 2 |
| 2 | 7 | 1 | 9 | 9 | 8 |
| 1 | 9 | 2 | 8 | 9 | 7 |
| 8 | 9 | 6 | 1 | 9 | 7 |
| 9 | 7 | 8 | 2 | 6 | 1 |
| 2 | 1 | 2 | 9 | 8 | 8 |
| 1 | 2 | 9 | 8 | 8 | 6 |
| 1 | 2 | 9 | 8 | 2 | 6 |
| 2 | 8 | 9 | 7 | 9 | 1 |
| 7 | 6 | 9 | 1 | 8 | 9 |
| 8 | 8 | 1 | 7 | 2 | 9 |
| 6 | 2 | 7 | 8 | 9 | 9 |
| 9 | 9 | 2 | 6 | 8 | 1 |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 이장규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85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89호     |